가을로 물든 국가정원… 폐막 일주일 앞 900만명 돌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목표 관람객 800만명 달성 15일만에
대구서 온 900만번째 관람 가족 100만원 상품권·숙박권 선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을 일주일 앞두고 9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최근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꼽힌 무료 박람회장 권역 오천그린광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을 일주일 앞두고 9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23일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박람회 관람객은 91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입장권과 식음료 판매를 통한 매출액은 430억593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원박람회는 지난 22일 9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이했다.

같은 달 7일 목표 관람객 수인 800만명을 달성한 이후 15일 만이다.

올해 4월 개막한 정원박람회는 이달 말까지 214일간 여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황금연휴인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를 맞아 가을 정원을 찾는 관람객이 부쩍 늘었다.

박람회 조직위는 가을 대표 명소인 순천만 갈대밭을 필두로 하고 억만 송이 국화로 순천만국가정원을 채웠다.

도심 속 경관정원 곳곳에는 코스모스 등 가을꽃을 심었다. 겨울철 진객 흑두루미가 순천만 습지를 찾아 그윽한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순천시가 10년 만에 여는 정원박람회의 차별화를 위해 마련한 오천그린광장(무료)은 순천 시민과 관람객 모두 사랑하는 공간이 됐다.

오천그린광장은 최근 산림청이 '2023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의 우수상 수상작으로 꼽았다.

오천그린광장은 4차선 아스팔트 차도를 6만평(19만8347㎡) 규모 잔디밭으로 꾸몄다.

이곳에는 대규모 마로니에 숲과 잔디밭이 어우러졌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싱(Earthing)길이 뻗었다.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고 도심 속에서 녹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22일 박람회장을 찾은 900만 번째 관람객에게 순천사랑상품권 100만원과 숙박형 체험시설 '쉴랑게' 숙박권을 선물했다.

900만 번째 주인공은 대구에서 온 일가족이었다.

노관규 조직위 이사장(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 인구에 맞먹는 관람객이 찾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보내주는 국민의 사랑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광양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휴대용 장비 2대 구입

광양시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휴대용 방사능 검사 장비 2대를 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능 검사 장비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시군 협력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장비는 전통시장과 매일시장, 수산물 도·소매점 업체 등을 점검할 때 활용된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으로 지난 2011년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5일 여수시·순천시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운동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한다.

류현철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군민 숙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순조

장흥~보성·보성~벌교 구간 1454억 투입…2025년 2월 첫 공급

보성군이 오는 2025년 2월 보성읍 도시가스 최초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성~장흥 간 천연가스 주 배관 매설 공사 현장.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오는 2025년 2월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보성군은 한국가스공사, 전남도시가스㈜와 지난 2020년부터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장흥~보성, 보성~벌교 구간 주 배관 공사'와 보성군·전남도시가스의 '보성읍 내 소매배관 공사'가 있다.

주 배관 공사는 장흥~보성, 보성~벌교 구간에 각 600억원, 85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구역에는 각 26.7㎞, 37.7㎞ 길이의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다.

장흥~보성 구간 건설 공사는 금호건설㈜이 올해 7월 착공했다. 보성~벌교 구간은 삼환기업㈜이 맡아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다.

보성읍 도시가스 주 배관 공사는 2021년 6월 한국가스공사에서 벽산엔지니어링㈜에 공급 배관 실시 설계 용역을 계약해 추진되고 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준공까지 건설 사업을 관리한다.

보성읍 내에는 40㎞ 길이의 소매배관 공사를 추진한다. 보성군 80억원, 전남도시가스 80억원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전남도시가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 같은 해 8월 착공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또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건립을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최종 부지를 선정해 이달 중 사업실시계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보성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11년 시작했지만, 재원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10월 보성읍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전남도·보성군·한국가스공사·전남도시가스 4자 간 협약을 맺은 뒤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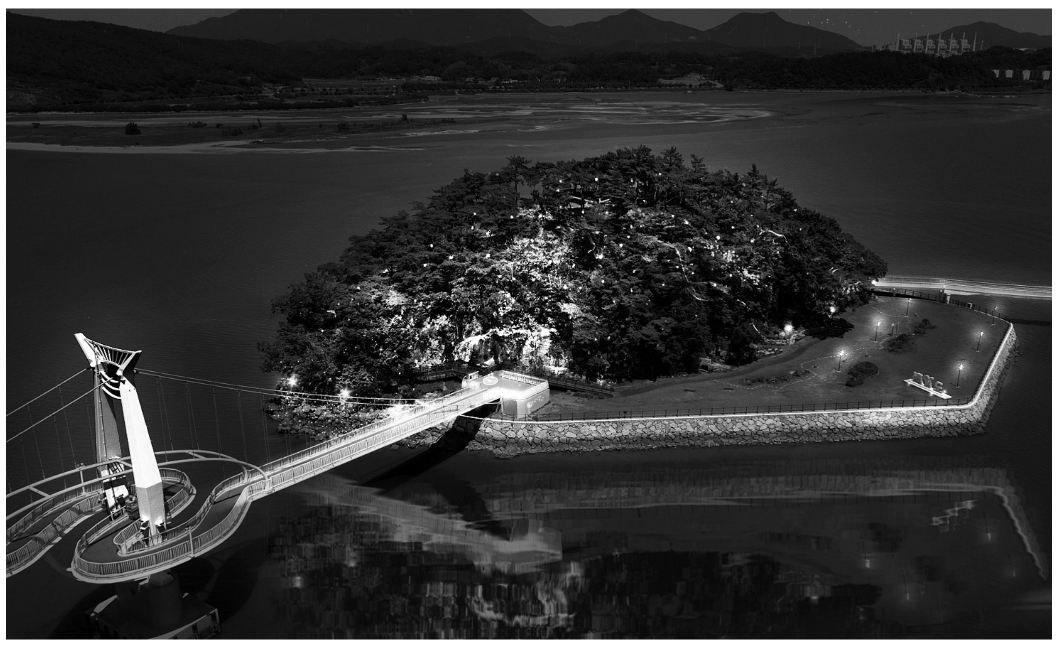
한편 벌교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8년 9월 최초 공급 후 2022년 12월 현재까지 총 1800세대 공급을 완료했다. 지난 2020년부터 미공급 지역 확대 사업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읍민의 숙원인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차례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전남도시가스와 협력해 2025년 2월 보성읍 도시가스 최초 공급을 시작으로 연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 배알도·망덕포구서 2898개 '별 헤는 밤'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 선정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인근
'별의 길' 등 미디어파사드 추진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인 광양 배알도 미디어파사드 구상도. 〈광양시 제공〉

광양 배알도와 망덕포구가 '밤 여행' 명소로 거듭난다.

광양시는 최근 '배알도 미디어파사드 설치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열고 배알도 일대를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을 논의했다.

배알도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행정안전부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추진된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에 영감을 얻어 배알도와 망덕포구 일원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장, 각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알도의 밤을 수놓을 조명은 모두 2898개로 꾸며진다. '2898'이라는 숫자는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글자 수이다.

망덕포구 인근에는 시인 윤동주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정병욱 가옥이 있다.

광양시는 '별의 길'과 '바람의 길' '하늘숲길' '우정의 길' '기억의 길' 등 5개 주제로 16개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별의 길'은 윤동주의 시를 통해 그려지는 상상을 조명(LED)으로 연출한다.

'바람의 길'은 바다에 일렁이는 별 무리를 표현한다. '하늘숲길'에는 윤동주의 시를 들을 수 있는 '별 모양 의자'가 설치된다.

'우정의 길'에는 윤동주와 정병욱의 이야기를 담는다. '기억의 길'은 태양광 발전으로 스스로 빛나는 축광석을 이용해 만든다.

광양시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내걸고 올해 배알도에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마련되면 내년 초 착공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유일하게 윤동주의 친필 유고를 간직한 섬진강권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역사 공간이고 남해안 남중권의 핵심 관광거점"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글로벌 익사이팅 생태레저 관광 호응

15개국 22명 챌린지 참여 성료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곡성군이 9~10월 외국인 방문객과 '글로벌 익사이팅 코리아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다.

곡성군은 이달 15일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5개국 방문객 22명이 '글로벌 익사이팅 코리아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대한민국 100대 명산 동악산·패러글라이딩 도전'에 참여했다.

이들은 섬진강에서 패러글라이딩하고 '100대 명산'으로 꼽힌 동악산을 달렸다.

같은 날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교사들도 곡성군이 마련한 생태 레저관광을 즐겼다.

앞서 지난달에 진행한 행사에서는 서울에서 고속철도 등을 타고 곡성을 찾은 참가자들이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뚝방마켓에서 곡성 특산품과 다양한 공예품을 둘러본 뒤 '가정역'에서 '인성원'까지 10㎞ 구간 자전거 일주를 했다.

이후 대황강에 도달한 참가자들은 카약 체험을 즐겼다.

곡성군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청어린이대축제'를 최근 열고 곡성 특산품인 장미에 초콜릿을 결합한 '로즈카카오' 상품을 개발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가족형 체험과 압록상상스쿨 등을 선보이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만들기 첫 발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12월 초 정식 출범 목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뗐다.

여수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섬박람회조직위)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 공동 이사장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이 추대됐다.

설립 발기인으로는 10명이 활동한다.

김 지사와 정 시장, 안규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김영신 재단법인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수관 ㈜YC-TEC 회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이경아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이사, 최무경 전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설립 취지문을 낭독하고, 임원 선임, 정관 채택 등 재단 설립을 위한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수시는 다음 달까지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초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섬박람회 조직위는 내년부터 박람회장 조성과 운영, 전시 연출, 수익사업, 참여국·관람객 유치 등 국제행사 세부 실행을 전담하게 된다.

정기명 시장은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만큼 박람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지역 발전과 함께 섬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